

바이오센터, 분석지원 서비스 이용 증가

경기바이오센터가 제약 등 바이오기업의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첨단장비 활용 분석지원 서비스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

경기바이오센터에 따르면, 5-6월 2개월간 바이오 제약분야 신약 개발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26종의 첨단장비를 활용해 모두 1452건의 분석서비스를 제공했다.

장비에 따라 최소 12건에서 최대 122건까지 시험분석에 활용될 정도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센터는 각종 분석서비스가 본격화되는 7월부터 입주기업은 물론 외부기업에 이르기까지 이용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바이오센터는 경기도가 제약분야 신약개발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958억원을 들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테크노벨리 3만3058㎡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3만1979㎡로 건립해 3월 문을 열었다.

센터에는 현재 국내 유력 제약기업 21개와 대학연구소 3개 등 24개 연구기관이 입주해있다.

<화학저널 2007/07/10>